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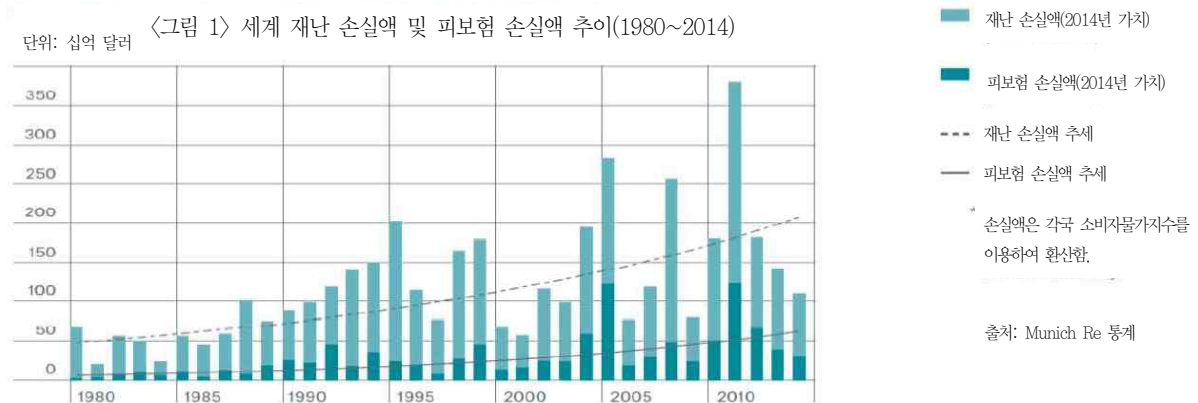
# 기후변화에 대한 IAIS의 이슈와 보험 회사의 대응

김진억 수석담당역

■ 기후변화는 그 자체와 함께 각 정부의 대응 정책이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가 제기하는 보험관련 이슈들과 함께 보험회사의 대응을 살펴봄.<sup>1)</sup>

-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지역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이 있으며, 최근 신흥 경제국(러시아, 인도, 브라질과 아프리카) 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어, 기후변화는 범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은 전력, 난방 등을 위한 화석연료 소비(61%), 산림 벌채(18%), 그리고 농업(14%) 등임.
- 이에 따라 11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기온이 2도 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일명 ‘섭씨 2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을 논의하였음.

■ 보험산업과 관련한 이슈로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재난의 크기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난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것임.



1) IAIS(2015. 11), “Climate Change: Considerations from IAIS Perspective”, Newsletter(Issue 46).

- 여러 나라의 보험산업이 날씨관련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손실액의 크기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선진국에서조차 보험을 통한 재난구제가 충분하지 않음.
  - 이에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정부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재난을 대비한 추가 자본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것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신흥국 및 저개발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리스크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경제성장 감소도 초래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신흥국과 저개발국의 경우 보험시장의 육성을 통해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 이를 위한 금융시장 발전 정책은 사회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sup>2)</sup>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보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음.
- 또한 보험산업은 장기 기관투자자로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화석연료 감축 실행 목표의 실행에 따라 다른 투자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섭씨 2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이 실행될 경우 화석연료관련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할 것이며, 에너지 산업 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산업은 다른 자산으로 투자 변경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섭씨 2도’ 목표와 관련한 장기투자자산 재배치 움직임은 일부 보험시장에서 관측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XA의 경우 약 5억 유로 상당의 석탄투자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 한편 로이드, Allianz와 같은 대형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를 가장 큰 이슈로 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 영국보험자협회(ABI)와 유럽보험/재보험협회와 같은 조직 또한 기후변화에 대해 자사 리스크관리 차원을 넘어 보험회사들이 협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음.
  - AIG, Allianz, 로이드, 마쉬, 뮌헨리, 스위리와 같은 대형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 문제의 이해와 같은 초기단계의 대응에서부터 재난 방재 기법 개발,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 탄소 리스크 관리와 탄소 저감 서비스 제공, 기후보호를 위한 파이낸싱 참여, 기후변화 해결책에 대한 투자, 공공 정책 관여, 탄소 리스크 공시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IAIS, ClimateAction 등)

2)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계층에게 금융 정보와 지식을 전파하고 특화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포섭, 금융통합, 금융포용, 금융접근성 제고 등의 용어로도 쓰임.